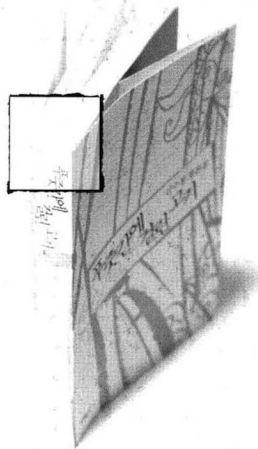


과잉칭찬과 공생의 카르텔을 넘어서,



젊은 작가들에게 보내는 진지한 시선

《푸줏간에 걸린 고기》 신수정 지음 | 문학동네 | 452쪽 | 값 12,000원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선정회의는 기자들의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참관과 지방출장으로 평월보다 늦은 10월 15일 오후에 열렸다. 덕분에 보통 때보다 더 많은 책들 중에서 후보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막상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기자들의 애정이 깊어진 타인지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다.

후보에 오른 11종의 책은 박석무의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서윤영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오인환의 《조선왕조에서 배우는 위기관리의 리더십》, 신현준의 《신현준의 WORLD MUSIC 속으로》, 이한우의 《세종, 그가 조선이다》, 송항룡의 《이야기 장자철학 남화원의 향연》, 문국진의 《반 고흐, 죽음의 비밀》, 신오현의 《원효 철학 에세이》, 신수정의 《푸줏간에 걸린 고기》, 정길연의 《쇠꽃》, 조현용의 《파도는 잠들지 않는다》 등이었다. 이 중 《조선왕조에서 배우는 위기관리의 리더십》, 《반 고흐, 죽음의 비밀》,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원효 철학 에세이》, 《푸줏간에 걸린 고기》가 1차 선정과정을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원효 철학 에세이》, 《푸줏간에 걸린 고기》가 남았었다.

'반야와 해탈의 현상학'이라는 부제를 단 《원효 철학 에세이》는 인간의 본질을 실존으로 보고, 서양철학의 의식이론을 동양철학, 특히 불가철학의 사유체계에 의존해서 극복하고자 한 저작이다. 근대 이후, 불교를 진정한 의미에서 '철학적으로' 해석한 불교학이나 철학의 사례가 드문 학계의 풍토를 딛고 지난 30

여 년 동안 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로운 책이다.

《푸줏간에 걸린 고기》는 1990년대 문학이란 무엇인가 분석하고 성찰한 비평집으로 동료비평가들이 쉽게 찾지 못한 신인작가들의 낯설고 발랄한 매력을 찾아낸 젊은 비평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란 평을 받았다. 또한 문학의 위기라는 논의 속에서도 문학이 살아 있고 현재진행형이라고 확고하게 말하는 평론가의 의식도 눈여겨볼 만하다.

오랜 논의 끝에 11월호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에는 《푸줏간에 걸린 고기》가 선정됐다. 독창적인 창작이 아니라 타장르에 '기생(?)' 할 수밖에 없는 문학평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푸줏간에 걸린 고기》가 선정된 이유는 이 평론집을 통해 1990년대 우리문학의 지형도를 그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의 평론이 '주례사 비평'으로 상징되는 과잉칭찬과 공생의 카르텔로 전락했다는 데에서 오랫동안 느껴야 했던 낭패감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 줬다는 데 〈출판저널〉 기자들이 동의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동안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출판의 중요한 한 부분인 본격문학 장르가 선정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도 한몫했음을 고백한다.

12월호에는 2월부터 11월호까지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에 선정된 10종의 책을 놓고 '올해의 책, 올해의 저자'를 뽑을 예정이다. ❦